

신약 역사, 문학 및 신학

세션 6: 매튜 소개 1부

테드 힐드브란트 박사

A. 소개 [00:00- 1:10]

A: AC **결합**; 00:00-9:15; **매튜 아크로스틱 소개**

저는 신약 역사, 문학, 신학 수업에서 마태복음의 시작 부분에 대한 6번째 강의를 맡은 테드 힐드브란트 박사입니다.

신약 역사와 신학 수업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배경, 페르시아인, 그리스인, 마카비인 , 로마인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그런 다음 지난 시간에 영감에 대한 질문, 정경성, 수집 과정, 서기관들이 계속해서 베껴 쓴 필사 과정과 그것을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번역과 다양한 번역,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감, 정경성, 전달, 번역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이제 마침내 마태복음을 다룰 준비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일종의 시작이며, 마태복음으로 넘어가서 더 큰 그림을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그것을 자세히 살펴보지는 않겠지만 여러분은 그 책에 대한 좋은 감각을 얻게 될 것입니다.

나. 복음서: 저자와 청중 [1:10- 5:26]

그래서 저는 마태 복음에서 시작하고 싶고 기본적으로 마태 복음의 이야기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의 모든 토론을 마태 복음의 주제에 따라 이런 종류의 두문자어에 따라 구성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마태 복음이 체계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 복음을 체계적으로 만드는 방법은 마가 복음과 누가 복음이라는 두 복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태 복음을 마가 복음과 누가 복음과 비교하여 두 복음의 차이점을 살펴볼 것입니다.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마태 복음이 체계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몇 개의 복음으로 시작해서 실제로 네 개의 복음이 있습니다. 마태 복음, 마가 복음, 누가 복음이 있는데, 이 세 복음을 공관 복음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나중에 이것에 대해 알아볼 것입니다. 공관 복음은 “한 눈으로”라는 뜻입니다. 즉, 마태 복음, 마가 복음, 누가 복음은 모두 예수님을 이 한 가지 관점에서 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공관 복음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한 눈으로 봅니다. 다른 복음인 요한 복음은 90% 이상의 시간 동안 그리스도를 매우 다르게 봅니다. 요한 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의 이야기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완전히 다른 관점을 얻게 되고 어떤 사람들은 (마태, 마가, 누가와 요한의 차이점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차이점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저는 차이점을 살펴보고, 그 차이점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사람들이 이야기를 다르게 전할까요? 그래서 세리인 마태는 마가와는 다르게 이야기를 전할

것입니다. 마가는 당시 예루살렘 출신의 청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누가는
예수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누가는 역사가이자 의사에 가깝기 때문에 그의
관점은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가 부른 어부였던 요한과는 매우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진 네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의 관점에서
그들 각자는 예수의 삶에서 얻은 것에 대해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유형의 청중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까? 청중에 따라
이야기를 다르게 전달합니다. 이야기를 하는 사람과 관련하여 저에게
고전적인 것 중 하나는 아프가니스탄에서 방금 돌아온 제 아들이 가족과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거기에 있었고 그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훌륭한 이야기꾼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웃고 즐거워하며
이야기는 당신을 웃게 합니다. 그들은 정말 재밌는 이야기들이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야기에 웃습니다. 그런 다음 아이들은 공항에서 다른 아들인 잭을
데리러 나갔고 아이들이 방을 나가자마자 제 아들은 제 아내와 저에게 다른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웃는 대신 거의 우리를 눈물 흘리게
하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이야기 중 일부는 지금까지 여러 번 들었고 세 번
들으면서 그가 다른 청중에게 말하는 것을 듣고 그는 다른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그와 차에 혼자 있을 때 갑자기 그는 모든 이야기의

이유를 말하고 모든 것을 연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야기를 다르게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이야기가 정확히 같은 단일체로 보거나 만들려고 하는 대신, 교회는 그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예수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가 전해지기를 원했습니다. 마치 왜 눈이 두 개나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한쪽 눈이 멀면 깊이 지각이 불가능하고, 그래서 눈이 두 개입니다. 그들은 실제로 앞쪽에 두 개의 렌즈가 있는 카메라를 가지고 있어서 실제로 피사계 심도, 이 3차원 감각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와 함께 예수에 대한 네 가지 다른 견해가 담긴 네 가지 복음서가 주어집니다. 요한은 예수가 말하고 행한 모든 것을 세상의 모든 책에 기록한다면 그것을 담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에 대한 네 가지 다른 스냅샷과 관점을 얻게 되고 그것은 도움이 됩니다. 복음서 사이에 갈등이 있는 곳에 도달했을 때 손을 들어 갈등이 귀찮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아니요. 그것은 훌륭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보고 싶습니다.

C. 개요 - MATTHEWS 머리글자어 [5:26-9:15]

마태 복음은 우리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과 비교할 때 체계적입니다[M]. 그리고 우리는 잠시 후에 그것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두 번째 사항은 마태복음이 사도 [A]라는 것입니다. 저는 "A"를 받기 위해 그렇게 했지만, 마태는 제자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제자도는

이 책의 주요 주제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선생님이로 묘사됩니다. 그는 두 번째 모세, 새로운 모세로 여겨지며, 이 새로운 모세 모티브를 얻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전하는 새로운 모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마태는 그들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는 선생님이로 발전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자도 또는 사도도를 가지고 있고, 그런 다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학[T]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학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림 성경을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왕으로 묘사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왜 마태는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합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다윗의 아들” - 그는 다윗으로 시작하는데, 그는 예수를 왕으로 묘사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를 다윗의 아들, 그리스도로 묘사합니다.

우리는 또한 마태복음에서 시간[T]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는 과거를 매우 중시할 것입니다. 마태는 다른 어떤 복음서보다 구약성경을 인용할 것입니다. 그는 아마도 유대인 청중을 대상으로 글을 썼기 때문에 구약성경에서 많은 것을 인용하고 과거를 언급할 것입니다. 그는 현재의 예수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하고, 마태복음에서 발견되는 예수의 위대한 5가지 설교, 예수의 위대한 5가지 담론을 우리에게 줄 것입니다. 이것은 모세의

새로운 오경과 비슷합니다. 예수께서 새로운 오경을 주실 것입니다.

산상수훈과 올리브산 담론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마태복음의 올리브산 담론에서 미래에 대해 몇 장을 집중적으로 말씀하실 것입니다.

미래는 현재와 어떻게 연결될까요? 다가올 왕국은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왕국과 어떻게 비교될까요? 마태는 우리가... 고든 칼리지에서 가르쳤던 데이브 매튜슨 박사는 항상 "이미지만 아직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조지 엘던 래드가 "이미지만 아직은 아니다"라고 말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복음서에는 교회에 이미 존재하는 이미와 아직 오지 않은 것 사이에 긴장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미와 아직 아닌 것 사이에 긴장이 생깁니다. 이것을 살펴보고 마태가 이 시간적 관점을 어떻게 다루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런 다음 "H"에서 이 책의 히브리적 관점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은 매우 히브리적, 매우 유대적이며 매우 유대적인 독자층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태복음이 아람어로 쓰여져서 그리스어로 번역되었다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찬반이 논쟁되고 있지만 유대인 독자, 히브리인 독자를 대상으로 쓰여진 것 같습니다. 유대인 독자를 대상으로 쓰여졌지만 이 책은 또한 이방인(비유대인)을 포괄하는 측면에서 확장적이고 광범위합니다[E]. 따라서 이 책에서 항상 강조되는 비유대적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광범위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비유대적 측면 중

일부를 살펴볼 것입니다. 그런 다음 증거[W], 복음의 시작과 끝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한 증인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우리는 증인의 개념을 살펴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마태의 스타일[S]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다른 복음서 저자들과 비교했을 때 그의 글쓰기 스타일은 어떤가요? 이걸, 당신이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MATTHEW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건 MATTHEW'S의 끝에 "S"가 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진행하면서 토론을 정리할 것입니다. 어리석은 두문자어를 써서 죄송하지만 제가 기억하는 건 이렇습니다.

다. 방법론적 [M] -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9:15-12:49]

B: DF를 합친 것; 9:15-18:26; 마태는 체계적이다(참조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래서 우리는 마태오를 체계적으로 살펴보고 싶습니다. 마태의 이야기는 어떻게 이야기를 전달합니까? 마태는 마가와 어떻게 다른니까? 많은 사람들이 마가를 우선적으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 즉, 마가가 먼저 쓰고 마태가 두 번째로 썼다는 것입니다. 마태는 누가와 마찬가지로 마가에서 많은 내용을 인용합니다. 그래서 누가는 마가에 의존하고 마태는 마가에 의존합니다. 그들은 어떻게 다른니까? 마태는 자신의 목적과 청중에 따라 어떻게 사물을 수정했습니까? 마태는 누가와 어떻게 다른니까? 마태와 누가는

아시다시피, 둘 다 마가에서 인용하고 마가에 대해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누가는 예수를 만난 적이 없지만 목격자와 함께 역사적 작업을 하고 있다고 미리 말합니다. 누가는 특히 목격자를 끌어들이고 있으며 데오빌로를 위해 이야기를 구성하고 있다고 언급합니다. 그는 가장 뛰어난 데오빌로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반면, 마태는 유대인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점은 독특한 자료입니다. 마태복음의 독특한 점은 그가 우리에게 자신의 관점과 그가 실제로 전달하려고 하는 바를 말해줄 것입니다. 당신은 그의 독특한 관점을 보여주고, 그가 예수에 대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견해와 그가 거기서 하려고 하는 바를 찾는 데 도움이 되는 루가, 마태, 마가와 차이점을 살펴보고 싶어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선, 우리는 마태와 마가의 관계를 발전시키고 싶은데, 그 중 하나는 마태가 여기서 “마가의 간략한 진술을 전개한다”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마가는 간략한 진술을 가지고 있고, 마가는 더 짧은 책입니다. 마가는 16장이며 장은 짧습니다. 마태는 더 긴 책으로 28장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마가에서 이와 같은 진술을 얻게 됩니다. 이제 이것을 확인해 보세요. 당신은 마태복음에서 그리스도의 유혹을 읽었습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의 유혹이 있습니다. 우선, 마태복음에서 그리스도의 유혹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림 성경에서 그것이 몇 장에 있는지 기억하십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유혹은 마태복음 4장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가셨고 광야에서 사탄이 그에게 와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이 돌들을 빵으로 만들어라. 예수께서는 신명기의 구약 율법을 사용하여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사탄은 그를 성전 꼭대기로 데려갔습니다(예루살렘 에서 길을 잃기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일부 분들은 가서 성전 꼭대기가 어디인지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실제로 15세기에 지어진 벽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좋아요”라고 말씀하시고, 그는 예수를 성전 꼭대기로 데려가 몸을 던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사탄은 구약 성경을 인용하여 “천사들이 [시편에서] 너를 받쳐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께서는 다시 신명기를 인용하여 사탄에게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사탄은 그를 높은 산으로 데려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헤르몬 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북쪽으로 멀리 있습니다. 그는 그에게 세상의 모든 왕국을 보여주고 말했습니다. “네가 절하고 나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왕국을 너에게 주겠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여기서 나가라. 너는 오직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한다.” 다시 한번, [그는] 신명기를 인용하여 사탄에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사탄과 세 번 상호작용을 하셨습니다. 돌을 빵으로 만들고, 꼭대기 성전에서 몸을 던지고, 그런 다음 산 꼭대기에서 내가 너에게 줄 모든 왕국을 주십니다.

마가복음의 유혹 [12:49-15:02]

마가복음에서 그리스도가 받은 유혹은 다음과 같습니다. “곧 [이것은 1장 12절과 그 다음입니다] 성령이 그를 광야로 보내시니, 그는 광야에서 40일 동안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들짐승과 함께 계셨으며 천사들이 그를 모셨습니다.” 마가복음에서 그리스도가 받은 유혹은 이것으로 끝입니다.

당신은 “돌을 빵으로 만든 것은 어떻고, 침탑 성전은 어떻습니까? 어떤 유혹도 언급하지 않고, “... 그가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들짐승과 함께 계셨습니다.”라고만 말합니다. 이제 당신은 “좋아요, 마태는 들짐승에 대해 말하지 않았습니까.”라고 말합니다. 마가는 들짐승과 천사들이 그를 모셨다는 것을 알아차린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거기에는 없는 내용이며, 당신은 마가가 왜 “들짐승과 천사들이 그를 모셨다”고 말했는지 말합니다. 왜 그가 그것을 넣었을까요? 마가는 아마도 로마 청중을 대상으로 썼을 겁니다.

알아낼 수 있는지 보세요. “들짐승과 그를 모시는 천사들”이 들어맞습니다. 마태는 그것을 언급하지 않고, 구약성경에서 그를 부르는 대로 사탄 “하사탄 [사탄 / 고발자]”과 예수의 상호 작용을 언급하고, 그런 다음 기본적으로 유대교에서 잘 알려진 세 장소로 그를 데려갑니다. “광야에서” 두 번째 모세 모티브를 보십니까? 광야에서 사탄의 유혹을 받음. 그래서 마태는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이야기에서 세 가지 측면을 전개합니다.

그래서 마태는 요약하고, 마가의 간략한 진술을 가져와서 풀어냅니다. 그것이 마태복음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 것은 유혹입니다. 우리는 방금 마가복음 1장

12-13절에 대해 이야기했고, 마태복음 4장 1-11절로 확장되었습니다. 마태가 왜 그렇게 전개했을까요? 예수는 새로운 이스라엘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유혹을 받고 실패했을 때, 이제 예수는 새로운 이스라엘은 광야에 있으며 오직 그가 성공합니다. 그는 사탄의 유혹을 저항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이스라엘로서의 예수는 마태복음의 이 구절에서 전개됩니다.

마. 산상수훈 - 왕국 전파 [15:02-18:26]

이제 왕국을 전파하면서,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왕국을 전파하셨다고 언급합니다. [1장 14절을 읽어 보겠습니다], “요한이 옥에 갇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로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때가 됐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복음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의 끝입니다. 이제 마태복음으로 넘어가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제가 전에 말했듯이) 이 새로운 모세 캐릭터로 묘사되고, 새로운 모세로서 그는 이 설교에서 자신의 가르침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가진 것은 산상수훈 또는 SOM이고, 일어나는 일은 마태가 마가복음에서 한두 구절을 가져간다는 것입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회개하고 믿으십시오

.” 그것이 마가복음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는 이 사실을 산상수훈에서 설명합니다.

여러분 중 누구라도 성경에 예수님의 말씀이 빨간색 글자로 적힌 빨간색 글자 번역본이 있다면, 그것이 5장, 6장, 7장에 걸쳐 있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행복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하는 세 장 전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고,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고, 사람들이 너희를 박해할 때 너희는 복이 있고, 복이 있고, 복이 있다...” 그는 내려가서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와 산상수훈, “판단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리니 ”에 대해 논의합니다. 7장에서는 황금률, “남에게 하기 전에 남을 대하라” - “남에게 원하는 대로 하라” -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라. 예수님은 산상 수훈에서 이 모든 것을 발전시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에서 왕국 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세 장으로 확장합니다.

산상 수훈 은 훌륭한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들은 전국이나 전 세계를 여행하다 보면 성경의 다른 구절을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산상수훈, 산상수훈, 산상수훈을 강조하는 교회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산상수훈만 가르칩니다. 산상수훈은 훌륭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요약한 것이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시작하기에 좋은 곳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른 것들도 가르치셨고 사도들도 가르쳤으며 구약성경도 가르쳤습니다. 따라서 성경 전체를 고려해야 하므로 정경 내에서 정경이라고 부르는 것을 특권으로 여기는 데 주의해야 합니다. 성경의 어떤 부분을 받아들이고 다른 부분보다 강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과정과 수업에서 우리는 성경을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그 중 어느 것도 특권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가 중요하고 마태복음도 중요하며 모두 중요합니다. 그것들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의 일부이고, 야고보서보다 로마서를 특권화하지 마세요. 그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들을 모두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산상수훈은 정말 특별한 텍스트이고 경이롭지만, 마가복음에서는 한두 구절이고, 마태복음에서는 세 장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마태는 마가복음의 간략한 진술을 전개합니다.

나. 예수의 말씀과 예수의 행적 [18:26-20:29]

C: GI를 합치다; 18:26-28:29; 마태복음. 작품을 요약하고 단어를 길게 늘린다.

예수

마태는 예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다루고 마가는 예수님의 행적을 더 많이 다루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마태는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발전시켰는데, 주로 그가 예수님을 새로운 모세로 묘사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가르침, 오경, 창세기에서 신명기까지 성경의
 처음 다섯 권입니다.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본보기로 삼고, 예수님을
 모세에게 본보기로 삼고, 모세는 오경과 토라, 성경의 처음 다섯 권,
 창세기에서 신명기까지, 모세와 시내산의 관련성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마가는 로마 청중을 대상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마가는 예수님의 행적을 더
 많이 다루고,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고, 예수님은 저렇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치셨는지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해주지 않고,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해 말해줍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가르치는 데 더 집중하고, 어떤 사람들은 행적과 예수님이 실제로 무엇을
 하셨는지에 더 집중합니다. 마가는 청중 때문에, 그리고 제 생각에 그 자신도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 그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중에 대해
 물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의 청중은 로마인인 듯합니다. 그들은
 로마적 배경에서 온 행동에 더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를
 위대한 랍비, 랍비 교사로 보기 때문에 예수의 가르침에 더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다섯 가지 설교를 중심으로 예수의 가르침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전체 책은 이 다섯 가지 설교를 중심으로 구성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제안했고 제가 그냥 뜯어낸 것처럼 제가 여러분에게
 제안하는 것은 마태복음의 설교가 예수를 새로운 모세로 모델화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는 다섯 권의 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는 마태복음에서 다섯 가지 주요 가르침/설교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러한 움직임에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은 체계적입니다.

H. 마태 요약 [20:29-25:09]

이것은 사실 꽤 충격적입니다. 마태복음은 실제로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은 마가복음보다 훨씬 큼니다. 마가복음의 모든 것이 캡슐화된 형태일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매우 작고 핵심과 같을 것입니다. 핵심은 마가복음에 있을 것이고, 마태복음은 그 핵심을 튀어나오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에서 두세 구절을 살펴볼 것이고, 마태복음의 전체 장을 살펴볼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그 핵심을 튀어나오게 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행위에 관해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 우리는 귀신 들린 자들, 가다라 귀신 들린 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 예수께서 이 사람에게 오셨습니다. 그 사람은 스스로를 베고, 베고, 일종의 베는 사람입니다. 그는 묘지에 있습니다. 아무도 그를 붙잡을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다가가서 "이 사람 속에 있는 너는 누구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 사람은 "음, 우리는 군대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에는 귀신이 너무 많아서 군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께 간청했습니다. “우리를 쫓아내거나 우리에게 해를 끼치지 마십시오. 우리를 저기 있는 돼지들 속으로 던져 넣으십시오.” 그래서 예수께서 귀신 군대를 돼지들 속으로 던져 넣으셨고 돼지들은 갈릴리 바다로 달려가 죽었습니다.

이 사람, 가다라 의 귀신 들린 자는 돌아가고 싶어합니다. 그는 예수님과 함께 가고 싶어하지만 예수님은 거절합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행하신 위대한 일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에 대한 노래가 있습니다. Casting Crowns나 어떤 그룹은 가다라 의 귀신 들린 자의 이야기를 부릅니다. 그것은 엄청난 이야기인데, 어떤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예수님에 의해 해방될 때까지 귀신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마가복음에서 가르가세네 의 귀신 들린 자와 귀신을 돼지에게 던지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이야기는 326단어 길이입니다. 마태복음에서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두 명의 귀신 들린 자가 가다레네 는 마가가 우리에게 말하는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134단어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마태는 마가의 이야기를 300단어가 넘는 것을 가져와 약 100단어로 축약했습니다. 마태는 마가에서 그 이야기를 가져와서 이야기를 확장하는 대신, 예수님이 돼지에게 귀신을 쫓아내신 일을 마가의 1/3로 축소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말씀을 가져다가 부풀렸지만 예수님의 행적을 가져와서 축소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는 마가의 1/3 크기입니다. 지금 파워포인트에서 말하고 있는 실제 요점은 마가 가 326단어이고, 귀신 들린 사람이 한 명인데, 마태복음에서는 134단어와 귀신 들린 사람이 두 명이라는 것입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행적에 초점을 맞추고, 마태는 예수님의 말씀에 더 초점을 맞춥니다.

이제 또 다른 예수가 물 위를 걷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예수가 물 위를 걷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이야기는 139단어 길이이므로 그는 139단어로 이야기를 전합니다. 마태복음 14장에서 세례자 요한이 참수당하고, 예수가 5,000명을 먹이고, 예수가 물 위를 걷는다고 말합니다. 마태복음은 베드로가 배에서 나와 예수에게 걸어가는 것에 대해 말합니다. 그런 다음 베드로가 물에 빠지고 예수가 그를 구해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베드로가 물에 빠지고 물에 빠지고 예수가 그를 구해내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추가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추가하면 마태복음의 이야기는 101단어로 마가복음보다 40단어가 적어 보입니다. 거의 3분의 1이 적고,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마태복음은 예수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축소하고 축소합니다. 마태복음은 책의 분량이 훨씬 방대하기 때문에 마태복음의 이야기가 훨씬 더 길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대신 이야기는 더 짧고, 베드로에 관한 이야기를 추가했습니다.

이제 질문은 그가 왜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를 추가했는가입니다.

베드로는 그의 작은 믿음의 결과로 빠졌습니다. 거기에는 흥미로운 것들이 있는데, 제가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베드로가 완벽한 제자라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에서 베드로는 완벽한 제자로 묘사된다고 생각합니다. 베드로는 선하고, 베드로는 악하고, 그는 두 가지 방식으로 묘사될 것이지만, 그는 일종의 대표자입니다. 베드로는 이 대표적인 제자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곳에서 특별한 제자로서 그 역할을 합니다.

I. 5대 설교 - 산상수훈, 12제자 파송, 비유들...[25:09-28:29]

이제 마태복음이 있고, 저는 기본적으로 마태복음이 어떻게 초점을 맞추는지 보여주고 싶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다섯 가지 담화 또는 다섯 가지 설교라고 부르는 것에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새로운 모세가 있고 어떤 의미에서는 새로운 오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첫 번째 큰 담화를 산상수훈으로 얻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중 세 장은 "너희는 옛날에 간음하지 말라 함을 들었거니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옛날에 살인하지 말라 함을 들었거니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유 없이 형제에게 노하는 자는 이미 마음속으로 살인한 것이니라"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요약한 세 장의 엄청난 가르침의 초점입니다. 그것은 경이로운 설교, 산상수훈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산상수훈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10장에 예수님이 열두 제자를 보내는 담화가 있습니다.

당신의 그림 성경에서 “열두 제자를 보낸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는 열두 제자를 보내면서 그가 나갈 때 힘든 시간을 보낼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는 그들을 이스라엘의 집에만 보냅니다. 이스라엘, 아마도 유대인 청중에게 초점을 맞춘 것을 다시 한번 주목하세요. 그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가서 기본적으로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래서 그는 복음을 전파하고 열두 제자를 보냅니다. 그런 다음 그는 그들을 위임하는데, 매우 긴 장입니다. 10장에서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그의 증인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지시합니다.

13장은 매우 유명한 구절입니다. 그림 성경에서 우리는 그것을 “왕국의 비유: 씨앗과 잡초”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위대한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13장, 천국의 비유에는 약 7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어떤 씨앗은 길에 떨어지고 기본적으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씨앗은 돌밭에 떨어져 잠시 돋아나지만 뿌리가 없어서 햇볕이 비추면 말라버립니다. 어떤 씨앗은 가시밭에 떨어져 가시밭에서 돋아나 정말 잘 자랄 것 같지만 가시와 잡초가 숨 막혀서 아무것도 맺지 못합니다. 마침내 어떤 씨앗이 땅에 떨어져 돋아나 60, 100개를 더 맺고 천국은 그와 같습니다. 사실 사람들은 항상 그것이 씨앗이나 뿌리는 사람의 비유가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토양을 말하는

토양의 비유라고 말합니다. 저는 그런 것들에 대해 다투고 싶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다양한 반응과 사람들의 삶에서의 그 효과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밀과 가라지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 남자는 가라지를 심고 밀을 심으며 밀이 자라기를 원합니다. 갑자기 그는 적이 거기에 모든 잡초를 심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잡초가 자라고 처음에는 밀과 똑같아 보입니다. 그 남자는 주인에게 “이봐요”라고 말합니다. “잡초를 뽑아도 될까요?” 주인은 “아니요, 추수 때까지 잡초가 밀과 함께 자라도록 두세요. 추수 때가 되면 가라지를 밀에서 분리하여 태워버릴 겁니다.”라고 말합니다. 가라지를 태워버리는 개념을 어느 정도 이해하실 겁니다 .

가라지는 나쁜 사람들이고 밀은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의 가르침에서 이 일곱 가지 비유를 얻게 되는데, 왕국의 비유인 “씨앗과 가라지”입니다. 거기에는 비유에 대한 훌륭한 가르침이 있습니다(비유에 관심이 있다면 시작하기에 좋은 곳입니다).

나. 다섯 가지 설교--공동체 지침(마태복음 18장) [28:29-31:37]

D: JL을 결합합니다. 28:29-37:03; 마태복음의 다섯 가지 설교.

마태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은 교회 공동체 내의 관계에 대해 말씀하셨고, 여기서 주로 -- 불의하고 무자비한 종에 대한 비유도 있습니다 . 그 종은 이 사람에게 수십억 달러를 빌렸습니다. 그는 그 사람에게 가서 “제가

당신에게 빚진 수십억 달러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큰 주인은 “용서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 사람이 집에 가서 어떤 사람이 그에게 10달러를 빚졌고, 그 사람은 그 사람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런 다음 주인은 돌아와서 “당신은 저에게 수십억 달러를 빚졌는데, 그 사람의 10달러도 용서하지 않겠소?”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그 사람과 큰 문제를 겪게 됩니다. 이것들은 공동체 지침이며, 또한 교회 공동체 내에서 갈등이 있을 때를 말합니다.

그런데 매튜스는 *예클린시 아나 교회* 를 언급한 몇 안 되는 복음서 중 하나입니다 . 그럼 교회에서 갈등이 생기면 어떻게 하시나요? 교회에서 누군가와 갈등이 생기면 어떻게 하시나요? 글썄요, 물론 험담을 하죠, 맞죠?

- 아, 아니요, 아니요,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문제가 있는 두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나요? 먼저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좋아요, 이게 문제예요”라고 말하고 나서 두 사람 사이에서 일대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세요.

그런데, 저는 항상 제 수업에 이걸 말해요. 저는 한 남자와 함께 일했는데, 그는 사업가인 앤서니였고, 저는 그에게 계속 “이메일을 보낼 때는 이메일에 부정적인 내용을 절대 보내지 마세요.”라고 말했어요. 기본적으로 누군가에게 부정적인 말을 할 때는 직접 만나야 해요. 그러니까 고든

칼리지나 다른 곳에서 문제가 생기면, 교무처장이나 학장이나 그 누구에게 문제가 생기면, 저는 그 사람에게 직접 가서 이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고 말할 거예요. 이메일로 보내지도 않을 거고, 전화해서 “이게 제 문제예요.”라고 말하지도 않을 거예요. 저는 그 사람에게 직접 가서 이야기할 거예요. 제 문제를 설명하고, 그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에 대해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일대일로 가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세요. 두 사람 사이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두세 명을 데리고 가서 세 사람이 한 사람씩 가서 증인 몇 명과 함께 모이세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혜를 발휘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 - 두세 명을 데려가서 돌아가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여전히 상황을 해결하거나 화해하지 않는다면, 교회로 가져갑니다. 교회는 장로와 집사로 구성되어 있거나, 여러분의 교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든, 여러분은 교회와 교회 사람들에게 가져갑니다. 그 사람이 교회의 말을 듣지 않고 여전히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기본적으로 그 사람은 파문과 함께 교회 밖으로 쫓겨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1대 1, 2대 3, 1대 1로 화해를 시도하고, 온 교회가 1대 1로 화해를 시도하고,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시점에서 그 사람은 교회에서 쫓겨나고 파문됩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몇 가지 공동체 지침을 주십니다. 교회나 소그룹 등에 관여한다면 좋은 구절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해야 할 일입니다.

K. 다섯 가지 설교 - 올리브산 설교 [마 24-25] [31:37-37:03]

마지막 설교는 올리브 산 설교로, 예수님이 올리브 산에서 전하신 메시지입니다. 올리브 산은 겟세마네 동산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예루살렘에서 길을 잃기 프로그램을 사용했고 올리브 산에서 예수님은 많은 시간을 보내실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도행전에서 올리브 산에서 올라가셨습니다. 그분은 올리브 산에서 하늘로 올라가셨고, 구약성경에서 그분이 올리브 산으로 돌아오실 것이고 올리브 산이 갈라질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올리브 산은 예루살렘 바로 동쪽에 있는 정말 유명한 곳입니다. 예루살렘에는 성전 산이 여기 있고, 키드론 계곡으로 내려가면 올라가면 약 2,700피트 높이의 높은 산이 있습니다. 여기가 올리브 산이고 동쪽에 있습니다. 올리브 산을 넘어가면 사막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반대편, 동쪽은 전부 사막입니다. 올리브 산은 여기 있고, 올리브 숲이 많아서 올리브 산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들은 저기서 올리브로 많은 일을 해요. 저는 올리브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들은 올리브를 짜서 올리브 오일을 만듭니다. 성경에서 기름을 볼 때마다 믿을 수 없었어요. 몇 년 전에 예언을 전하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와서 이스라엘에서 기름을 찾았다고 말했어요. 그는 창세기 49장에서 아셀이 발을 기름에 담그는 구절에서 기름에 대한 언급에 대해 말했어요. 그는 이스라엘 해안에서 이 모든 거대한 기름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고, 그는 석유에 대해 말하고 있어요. 아니요, 죄송합니다.

구약과 신약을 읽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겠지만, 기름, *세멘이 언급될 때마다* 올리브 오일에 대해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올리브 오일로 모든 것을 하고, 요리하고, 몸에 기름을 바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메시아 라고 말할 때*, 여러분은 “메시아”라고 말하죠. 메시아는 기름부음받은 자입니다.

여러분은 올리브 기름으로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름부음받은 자는 왕들에게 기름을 부었고, 제사장들에게 기름을 부었고, 선지자들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들은 올리브 기름으로 기름을 부었고, 그들은 *메시아*, 기름부음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성경에서 그 *메시아, 그들이 기름부음한 올리브 기름을 부은 자는 크리스토스*라는 단어로 나옵니다.

그래서 *크리스토스*는 그리스어로 기름부음받은 자를 의미하고, *메시아*는 히브리어로 기름부음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예수, *야슈아 크리스토스* (*크리스토스*는 “기름부음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예수, 기름부음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것은 올리브 기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진 것은 올리브 산이고, 그곳에서 많은 나무들이 예루살렘 동쪽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저기 반대편, 키드론 계곡 건너편에 있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 나오는 올리벳 강론이며, 미래에 관해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리브 산 담화는 미래를 보는 방식에 절대적으로 중요하며 그는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를 통해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고 말합니다.

아시다시피, “이들 중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그는 10명의 신부 들러리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5명은 지혜롭고 5명은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이 등잔에 쓸 기름을 구하러 달려가는 동안 주인이 와서 5명은 받아들여지고 다른 5명은 거부당합니다. 그래서 달란트의 비유가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 10달란트가 주어지고 그는 그 달란트를 곱합니다. 그 사람은 1달란트를 받고 땅에 묻고 주인은 그에게 매우 화가 나서 그를 내쫓습니다. 올리브 산 담화에서 미래나 다가올 왕국에 대한 예수님의 다양한 가르침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의 요점은 마태복음, 마태복음 전체가 이 다섯 가지 설교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다섯 가지 설교는 예수를 새로운 모세, 말하자면 새로운 오경으로 묘사하고 있으며, 이것이 마태복음이 실제로 구성된 방식입니다. 여기에는 큰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담화들 각각에서, 그것이 끝날 때, 이 구절로 끝난다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예수께서 끝내셨을 때...”. 그것은 계속됩니다, 예수께서 이것을 끝내셨을 때, 예수께서 저것을 끝내셨을 때. 그것은 창세기와 매우 유사합니다. 창세기에서, 여러분 중 일부는 저와 함께 구약성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창세기의 *톨레도* 진술들[“이것은 ____의 기록입니다”]; 이것은 아담의 가계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것은 노아의 가계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것은 썸의 가게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그것들 중 열 개입니다. “이것은 ” 의 기록입니다, 이것은 이 사람, 저 사람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창세기 *톨레도트* 책을 나누는 열 개입니다 . 여기서 여러분은 예수께서 이 부분의 끝을 끝내시고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셨을 때, 그리고 예수께서 끝내셨을 때, 그리고 그가 그것을 끝냈을 때 이러한 진술들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7장 마지막에 산상수훈의 마지막에 결론적인 *톨레도가 있습니다*. 11장 1절 1절에서 마무리가 있는데, 이것은 열두 제자를 보내는 것이고, 그래서 11장 1절에서 그 이야기가 끝납니다. 13장 53절에서 왕국의 비유의 마지막에, 다시 한번 예수께서 끝내시고 나서 계속하십니다. 그래서 마태가 그의 담론 부분을 마무리하기 위해 사용한 흥미로운 마무리 진술이 있는데, “예수께서 끝내시고” 계속됩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것이 그런 식으로 끝납니다.

M. 방법론적 - 마태오와 누가 [37:03-41:36]

E: Combine MN; 37:03-45:38; **마태오와 누가, 야고보**

이제 또 다른 비교를 하겠습니다. 마태는 누가가 뿌린 것을 모았습니다 . 이제 산상 수훈에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이걸 크게 만들고 싶지는 않지만, 그냥 흥미롭습니다. 그래서 이걸 여기 나눠서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기본적으로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마태복음에 산상 수훈이

있는데, 전부 5~7장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 소금은 나쁘니까 버립니다. 소금은 누가복음 14:34에 나오지만, 마태복음 5장에 나옵니다. 촛불이 있는데,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라” 촛불을 말 아래에 숨기지 말고, 말 아래에 촛불을 두지 않고 등잔대 위에 두어서 비출 수 있다는 걸 알죠. 말뚝 아래의 양초는 누가복음 8장에 나옵니다. 누가복음에서 소금은 14장에 나오고 양초는 8장에 나오는데, 6장 간격으로 나뉘어져 있는 반면, 마태복음에서는 바로 등뒤에 나옵니다. 소금과 양초가 바로 등뒤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11장에서는 “몸의 빛은 눈에 있다”고 했고, 마태복음에서는 같은 산상수훈 6장에 나옵니다. 하지만 누가복음 14장, 8장, 11장을 다시 한번 보세요. 전혀 다른 장들이죠! 이런 것들은 흩어져 있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마태복음 7장도 산상수훈의 일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도 어떤 맥락과도 분리되어 있고, 이 한 담화에서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이런 말들이 흩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제가 한 가지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예수께서 같은 설교를 한 번 이상 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테네시 주 브리스톨에 있는 성경 대학에서 공부했고, 그곳에 있을 때는 순회 설교자였기 때문에 매주 일요일마다 다른 교회에서 설교했습니다. 저는 다섯 개의 교회에서 설교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교회에서 같은 설교를 했을까요? 그래서 저는 한

교회에서 다른 교회로 가서 다섯 번 설교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좋았습니다. 설교를 한 번 적어두면 다섯 번 설교할 수 있었습니다. 저와 함께 여행한 아내는 처음에는 정말 끔찍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아내를 사랑합니다. 그녀는 저에게 솔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정액 그레인리스를 salis [소금한 알]라고 말했잖아요. 제 아내는 제 첫 설교가 나쁘다고 했어요. 제가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설교자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첫 설교를 했고, 아내는 고쳐야 한다고 했고, 두 번째는 훨씬 나았어요. 세 번째 설교를 할 때 아내는 “세 번째 설교는 정말 열심히 했고, 최고였고 정말 훌륭했어요.”라고 했어요.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설교를 할 때 아내는 “당신이 자신의 설교에 정말 지루함을 느꼈던 걸 알 수 있었어요.”라고 했어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예수께서 자신의 설교에 지루함을 느끼지 않으셨겠지만, 예수께서 이곳저곳을 다니시면서 같은 말씀을 여러 번 하셨고 다른 맥락에서 말씀하셨을 가능성이 매우 높을까요? 그러니 소금과 이것저것, 말 아래의 빛과 같은 것들을 인용할 때는 조심해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여러 다른 맥락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누가는 한 맥락에서 인용하고 마태는 다른 맥락에서 인용했을 수 있으므로, 그런 세부 사항들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대처하고 모든 것을 같은 렌즈를 통해 봐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히지 않아야 합니다. 아니요, 모든 것을 같은 렌즈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복음은 다른 렌즈로 제공됩니다. 여기서 요점은

마태가 누가가 뿌린 것을 모은다는 것입니다. 누가는 물건을 뿌렸지만, 마태는 체계적입니다. 그는 물건을 모읍니다.

서사와 연대기에 대해 무엇을 말할까요? 작가가 시간에 따라 정확히 연대순으로 쓰지 않는 것이 가능할까요? 작가는 항상 시간에 따라 이야기를 전개해야 할까요? 아니요, 시간은 단지 한 가지 요소일 뿐입니다. 작가가 주제를 전개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주제가 진행 중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주제가 연대기보다 우선합니다. 따라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었던 적이 있다면, 때때로 연대기가 어긋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가 전달하려는 요점이 다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요점은 반드시 연대기를 확립하는 것이 아니라 요점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해야 합니다. 이야기의 기능과 목적은 무엇일까요?

N. 마태오와 야고보서 [41:36-45:38]

이건 재밌는데요, 스탠리 포터가 쓴 기사를 읽었는데, 야고보가 야고보와 마태를 비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야고보서는 신약성서에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를 무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을 기억하시나요? 예수께서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부르셨던 어부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종종 특별하고 혼자 있을 때, 변형이나 죽은 소녀를 고칠 때 예수님과 함께 갔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들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초대했습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교회 초기에, 아마도 기원후 44년경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최초의 순교자 중 한 명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는 죽었습니다. 마태가 기록되기 전에, 요한이 기록되기 전에, 사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죽었습니다. 그는 초기 순교자이고, 사실 야고보는 최초의 순교자 중 한 명입니다.

이것은 또 다른 야고보입니다. 그는 아마도 예수의 형제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마태복음과 다른 곳에서 야고보와 형제들이 여기 있다고 언급합니다. 야고보와 요셉이 당신을 데리러 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고보는 예수가 잠시 미쳤다고 생각했지만 분명히 야고보는 예수를 받아들였고 그래서 야고보는 예수의 형제로 글을 쓸 것입니다. 매우 흥미롭습니다. 야고보는 예수의 형제라는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매우 흥미롭고 마태복음과 매우 유사하며 야고보서와 마태복음 사이에 이런 중복이 있습니다. 둘 다 그렇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그런데 야고보는 유대적 맥락에서 쓰여졌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공통된 독자층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는 “시험을 치르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흥미롭죠. 마태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말했거든요. 그래서 두 구절이 정확히 같은 단어는 아니지만 유사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또 다른 구절이 있는데, 이 구절은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야고보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거울로 자기의 본래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대조는 말씀을 듣는 자와 행하는 자를 대조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내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말씀을 듣는 것과 행하는 것을 대조한 것입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리라.” 지혜로운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었고, 어리석은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어리석은 사람은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동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마태복음과 야고보서에서도 말씀과 행동이 대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아마도 가장 충격적인 구절일 것입니다. 야고보서 5:12,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하늘이나 땅이나 다른 어떤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예’는 ‘예’로 하고 ‘아니오’는 ‘아니오’로 하여 심판을 받지 않게 하라.” 마태가 말하는 것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전혀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 말은 ‘예’ ‘예’ ‘아니오’ ‘아니오’로 하라.” 그래서 이 ‘예’와 이 ‘아니오’, ‘아니오’, 맹세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야고보와 마태 사이의 유사점을 확고히 합니다. 야고보와 마가 사이의 이러한 유사점과 마태가 무너지고 마가의 기적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확장하는 것은 흥미로운 일입니다. 또한 누가는 누가 뿌린 것을 모으고 여기서 야고보와 함께 예수의 많은 말씀과 유사점을 보입니다.

0. 마태의 이야기: 사도직 [“A” --제자도] [45:38- 48:09]

F: 합동 0S; 45:38-59:16; 마태복음에서 의 사도직 [제자도 1부]

이제 여기서 전환하고 싶은데, 이것은 두 번째 주제로의 큰 전환입니다 . 그래서 마태는 체계적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첫 글자 “M”입니다. 이제 그의 주요 주제 중 하나인 사도직으로 전환하고 싶습니다 . 그리고 그것은 제자도에 대한 그의 주요 주제입니다. 우선, 사도란 무엇입니까? 사도는 파견된 자입니다. 위임을 받은 자입니다. 따라서 사도라는 단어는 파견, *apostolos* , 파견된 자를 의미합니다. 위임이나 메시지를 가지고 파견된 자입니다. 보통 왕이나 누군가가 자신의 뜻을 대표하는 대표자나 대사를 파견합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은 파견된 자, 즉 왕의 메시지를 선포하기 위해 파견된 자가 될 것입니다.

제자도는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주제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앞서 말했듯이 베드로는 마태복음에서 강조될 것입니다. 베드로가 왜 그렇게 두드러진 역할을 할까요? 베드로가 묘사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는 완벽한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 마태는 제자도의 주제와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베드로는 그 제자도를 모델로 삼는 모범으로 사용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에는 베드로에 대한 독특한 이야기가 너무나 많은데, 그 이유는 베드로가 일종의 완벽한 제자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14장 28절 이하에 나오는 물 위를 걷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베드로는 우리가 방금 살펴본 적이 있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예수께서 물 위를 걷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시어 제자들을 약간 꾸짖으십니다. 예수께서 걸어가서 배에 오르십니다. 마태복음에서 베드로는 실제로 배에서 내려 예수께로 걸어갑니다. 베드로는 다시 한번, 예수의 제자가 모든 것을 걸고 배에서 나오려고 발걸음을 옮기다 가 물에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끌어내어 그의 믿음이 약해서 꾸짖으십니다. 마태는 베드로가 물에 빠지는 이야기를 전하는 유일한 사람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의 반석으로서의 베드로 [48:09-50:58]

여기에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 바위, 사탄. 여러분은 마태복음 16장을 기억하십니까? “너는 베드로, 베드로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글쎄요, 당신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너는 베드로, 게바”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바위”를 의미합니다. 당신은 베드로, *페트라*, 바위, “너는 베드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마태복음 16장의 이 구절에 대해 개신교와 천주교 사이에 큰 논쟁이 있습니다. “너는 베드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로마 천주교는 베드로를 받침대에 올려놓고 기본적으로 그를 교황으로 삼고 교황청이 거기서 나왔습니다. “너는 베드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교황청은 여기에서 가져왔습니다. 개신교는 “아니요, 베드로는 예수께서 교회를 세우실 반석이 아니지만 고백은 그랬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당신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은 예수께서 그의 교회를 세우실 반석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그 두 가지 접근 방식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바위였고, 마태의 의도로 돌아가서 베드로가 완벽한 제자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는 완벽한 제자이고, 그래서 “베드로는 내가 교회를 세울 바위입니다.” 하지만 그는 베드로 자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로서의 베드로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자들은 “내가 교회를 세울 대상”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제자들을 대표하는 모델로 여기고, 교회의 제자도에 대해 말하고, 그것이 교회가 세워질 대상입니다. 베드로는 이 특별한 것에서 언급됩니다. “너는 베드로라. 이 바위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런데 같은 구절에서도 사람들이 베드로를 높이 평가하려고 하면 조심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이야기를 나누시고 “이봐, 너희들아, 나는 죽을 거야,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힐 거야”와 같은 말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심각해지기 시작하고 베드로는 예수를 옆으로 데려가서 그를 꾸짖으며 “그런 일은 너에게 일어나지 않을 거야, 알다시피, 그런 일은 너에게 일어나지 않을 거야. 너는 메시아이니까... 등등”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예수에게 덤벼들었고 예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너는 사람의 일에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일은 관심이 없구나.” 그래서 예수께서 베드로를 꾸짖으시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베드로도 위대한 사탄이 될까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베드로가 완벽한 제자이고 대표적인 제자이며 베드로가 정말 좋은 말을 하고 정말 나쁜 말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그는 제자와 같고, 그리스도의 추종자, 일종의 대표자와 같습니다.

Q. 베드로-성전 세금과 예수를 부인함 [50:58-51:39]

성전세는 마태복음에서 독특한 또 다른 것입니다. 아니면 마태복음에서 “당신의 스승이 성전세를 내십니까?”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가서 “예수님, 성전세를 내십니까?”라고 묻습니다. 예수는 베드로에게 낚싯바늘이나 뭐 그런 걸 가져오라고 하시고, 내려가서 물고기를 잡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물고기에서 그는 동전을 꺼낼 것입니다. 이 동전은 반 데나리온이나 세겔이나 뭐 그런 거였습니다. 기본적으로 동전의 반은 예수를 위해 지불하고 반은 베드로를 위해 지불합니다. 그래서 그 동전은 반 베드로를 위해 지불하고 반은 예수를 위해 지불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마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베드로를 이런 종류의 대표적인 제자로 묘사하고 그를 특집으로 삼을 것입니다.

ㄴ. 그리스도를 부인함 [51:39-56:33]

책의 마지막에 베드로가 부인한 부분, 책의 마지막에 나오는 엄청나게 비극적인 진술,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제가 이걸 찾아낼 수 있을지 봅시다, 마태복음 26장 69절 이하). 정말 비극적입니다. 베드로는 정말 많은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베드로는 “예수님, 당신이 가는 곳마다 제가 갈 것입니다. 아니요, 당신은 죽지 않을 것이고, 제가 당신을 보호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가 기억하시겠지만, 베드로는 이 칼을 꺼내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랐습니다. 요한은 (분명히 그 사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말고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를 체포하러 나오는 말고 의 귀를 잘랐습니다 . 그러자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 베드로야, 칼을 꽂아라... 칼로 사는 자는 칼로 죽는다... 칼을 건드리지 마라, 베드로야, 내가 죽을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본적으로

베드로가 칼을 빼면 사람들은 예수께서 이런 일에 저항하지 않으실 거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내려가고 26장 69절에 이어서 “베드로가 뜰에 앉아 있었는데, 하녀가 와서 “당신은 갈릴리 예수와 함께 있었어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부인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관문으로 갔고 다른 하녀가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어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다시 부인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모릅니다 ” 라고 말했습니다. 잠시 동안 가까이 서 있던 사람들이 “당신은 분명 그들 중 하나였습니다. 당신의 악센트가 그들을 드러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롱아일랜드 출신인 소녀와 방금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들이 롱 기스랜드 라고 말하면 롱아일랜드 출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 카 ”라고 말하면 “ 카를 가지고 내려가자.” 여러분은 그들이 보스턴 출신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그들이 “y’ all”이라고 말하면, 특히 여기 뉴잉글랜드에서는 누군가가 와서 “Y’ all”이라고 말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는 그들이 남부 출신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들이 남부 출신이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겠죠. 뉴잉글랜드, 여기 보스턴 지역에서 그들이 그렇게 말하고 “Y’ all”이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그들을 바라보는 방식으로 그들의 IQ가 20포인트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Aye mate!”라고 말하고 영국식

악센트로 말하면, 그들의 IQ가 20포인트 올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뉴잉글랜드가 너무 웃기 때문에 웃습니다. "y' all"이라고 말하면 IQ가 떨어지고 "Aye mate"라고 말하고 영국식 악센트로 말하면 IQ가 올라갑니다. 그저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베드로, 우리는 당신이 어디서 왔는지 압니다. 당신은 갈릴리 출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당신의 악센트를 들을 수 있고 어디에서든 알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아니요"라고 말하며 주님을 세 번 부인합니다.

예수 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 예수의 제자가 그리스도를 세 번 부인한다는 것?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할 질문은 "그게 베드로인가, 아니면 나인가?"입니다. 제 인생 을 돌아보며 "나는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을 자신이 없어."라고 말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무엇이 내가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만들까?"라고 묻습니다. 이것들은 큰 질문들이고, 그래서 저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를 부인한다는 사실에 직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콜로라도 콜럼바인에서 그 소녀를 기억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남자들은 학생들을 들이받고 그냥 죽였습니다. 그들은 그냥 겨누고 있었고, 한 남자가 콜럼바인에서 그 소녀에게 총을 겨누고 (이것은 실화입니다) "당신은 기독교인이예요? 기독교인이예요?"라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네 , 저는 기독교인입니다."라고 말했고, 그는 방아쇠를 당겨 그녀의 머리를 날려버렸습니다. 머리에 총을 겨누고 있다면 그리스도를

부인하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부인하겠습니까?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사소한 일로 그리스도를 부인합니다 . 우리는 얼마나 자주 입을 다물고 우리가 누군가와 논쟁을 벌이고 싶지 않아서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매우 미묘하고 미묘한 방식으로 그리스도를 부인합니다. 우리는 복음주의자로, 더 나쁘게는 근본주의자로 여겨지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헌신을 부인합니다. 우리는 급진적인 사람으로 여겨지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중도파 사람으로 여겨지고, 어울리고, 매우 미묘하고, 매우 사려 깊은 사람으로 여겨지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적이거나 무언가로 보이고 싶어서 그리스도를 부인합니다. 우리 문화에서 종교는 기본적으로 세속적인 문화가 종교를 침묵시켰습니다. 종교는 매우 개인적이고 사적인 것이 되었고, 따라서 우리 문화에서 종교적인 말을 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매우 개인적이고 사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공개적으로 성생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종교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보다 쉽습니다. 저는 당신이 그것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뭔가 잘못된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쨌든 베드로는 주님을 세 번 부인했고, 그것은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마태복음에서 특별한 제자이고, 그는 대표적인 제자입니다. 완벽한 제자입니다.

S. 부르심과 소명 [56:33-59:16]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시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름이나 직업, 직업에 대한 부름이 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랍비의 경우 학생들이 종종 랍비에게 가서 “제 SAT 점수가 1500점이라는 걸 아시잖아요. 제 학생으로 받아주세요.”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학생이 랍비에게 가서 랍비에게 자신을 팔려고 했고, 랍비는 이 학생은 승인하고 저 학생은 거부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학생들의 지원서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삶 한가운데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을 때 그들에게 나가셨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들은 그물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가가서 “너희는 그물을 던지고 뭐든지 하라. 와서 나를 따르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름이 있었고, 떠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부르셨고 그들은 그물을 버렸습니다. 그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들 역시 어부였고, 그는 청소를 하거나 무언가를 하던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은 아버지 세베대를 떠나 그리스도를 따랐습니다. 그래서 부르심과 떠남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일들 가운데서 부르셨습니다.

예수께서 가장 뛰어나고 똑똑한 사람들을 부르셨을까요? 예수께서는 랍비나 사상가로 훈련받지 않은 채, 일터에서 어부들을 부르셨습니다. 왜 이 사람들을 부르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말했듯이, 이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사용하여 지혜로운 것들을 혼란스럽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르심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는 삶 속에서 그물을 던지는 평범한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이 사람들은 슈퍼스타가 아닙니다. 예수께서는 사실, 여러 번 그들을 꾸짖으시고, 여러분이 아직도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셔야 했습니다. 예수께서 누룩과 바리새인들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하셨고, 그들은 “아니요! 음식을 가져오는 것을 잊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떠나 가서 “알다시피, 우리는 이런 일을 했고, 정말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음식을 잊었고 예수께서 우리를 꾸짖으셨습니다. 그는 우회적으로 그렇게 하셨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실제로 바리새인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해하지 못한다. 내가 방금 5,000명을 먹었는데, 몇 바구니를 주워 모았는가? 내가 방금 4,000명을 먹었는데, 몇 바구니를 주워 모았는가? 그리고 너희는 충분한 음식이 없을까 걱정하는구나. 나는 누룩과 바리새인들에 대해 말하고 있다.” 그는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꾸짖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그의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그들이 그런 종류의 것들에 대해 실제로 잘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 참 제자의 자격 - 긍정 [59:16- 61:13]

G: TV 결합; 59:16-68:00; 제자도/순종, 2부

그럼 여기서 우리의 다음 요점은: 그리스도의 제자의 핵심 자질은 무엇인가? 저는 그리스도의 제자의 핵심 자질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고, 제가 기억할 수 있도록 이 어리석은 두문자어를 다시 한 번 말하고 싶지만, 여러분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제자를 특징짓는 기본적으로 다섯 가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비용 문제 [C]입니다. 제자도의 비용입니다. 제가 제자도의 비용에 대해 생각해보고, Dietrich Bonhoeffer 라는 사람이 쓴 *제자도의 비용* 이라는 책을 *들어본 것 같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비용을 다룰 때 이에 대해 조금 이야기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제자도의 비용; 저에게는 얼마나 들까요?

순종[O]은 제자도의 핵심 자질 중 하나이며, 마태는 그것을 발전시킬 것입니다. 이해[U]는 제자가 그의 스승을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누군가의 제자가 되려면 그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합니다. 의로움[R]은 마태가 독특한 방식으로 발전시킬 핵심 측면 중 하나이며, 의로움의 개념이 될 것입니다. 제자들은 의로워야 하며, 그는 그 의로움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에게 말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참[T] 제자와 거짓 제자가 있으므로 마태복음은 거짓 제자가 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가능한지에 대해 경고할 것입니다. 마태는 거짓 제자에 대한 이 문제를 제기할 것이고, 이것은 통찰력이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마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기독교에 들어왔을지도 모르는 유대인들에게

말하고 있으며, 그들은 결국 거짓 제자가 되어 떨어져 나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가 “법정”입니다. “법정”은 그곳의 두문자어입니다. 법원, 비용, 순종, 이해, 의로움, 그리고 참 제자와 거짓 제자입니다.

ㄴ. 순종 - 요셉 [61:13-65:39]

그럼 먼저 순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8절에서 제게 흥미로운 점은 마태가 그의 책을 어떻게 시작하는가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 누가 주요 인물입니까? 마리아가 아닙니다. 당신은 마리아가 거기에 등장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등장하는 사람은 마리아가 아니라 실제로는 요셉입니다. 1장 18절, “예수께서 나시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였으나 그들이 합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드러났더라.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우리가 제자로서 의롭다고 말한 것을 기억하시죠. 요셉이 의로운 사람으로 묘사된다는 것은 흥미로운 일입니다) 그녀를 공개적으로 욕되게 하고 싶지 않아서 조용히 이혼하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문제가 있습니다. 마리아가 임신했고 그는 그것이 자신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그녀를 다치게 하고 싶지 않아서 조용히 이혼하려고 합니다. 그는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가 사랑하는 아내, 그는 이 순수하고 아름다운 마리아가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녀는 지금 임신했습니다. 그는

그것이 자신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
 그러나 그가 이것을 생각한 후에 주님의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말했습니다. ‘
 다윗의 아들 요셉’”(여기서 연관성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다윗의 아들
 요셉으로 불립니다. 마태복음의 주요 요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왕으로서의
 예수가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아들입니다. 다윗의 아들 요셉,
 마태복음 1장의 족보를 기억하세요. “다윗의 아들 요셉아,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녀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계속해서 “... 이 모든 일은 선지자의 말씀이 이루어지려
 함이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신 것이니라.” “요셉이 깨어나서 ... (뭐, 그는 제자였으니까)...
 요셉이 깨어나서...” 요셉은 천사에게 순종하거나 불순종할 것이고, 천사는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요셉, 괜찮아. 성령에게서 온 것이니까.” “요셉은
 깨어나서 주의 천사가 명령한 대로 하여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지만,
 그들이 아들을 낳을 때까지 그녀는 그와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에게
 예수라는 이름을 지었는데, 예수는 무슨 뜻일까요? 여호와를 구원하시고,
 야훼를 구원하시고, 주님은 구원하십니다. “그분은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1장에서 천사의 메시지를 듣고
 천사가 말한 대로 행하는 사람으로 묘사됩니다.

마태복음 28장은 어떻게 끝나나요? 이 책은 마태복음의 마지막 장, 아주 유명한 구절인 대명령으로 끝납니다. 이 책은 이렇게 끝납니다. "... 열한 제자가 갈릴리로 갔습니다(이것은 28장 1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가라고 말씀하신 산으로 가서 그를 보고 경배하였으나 어떤 사람들은 의심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으니 가서 제자를 삼으라" 제자도의 개념은 "가서 제자를 삼으라[내가 너희를 제자로 삼았으니 너희도 가서 그들을 제자로 삼으라]. 그러므로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유대교만이 아니라, 다시 한 번 광범위합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침의 하이라이트를 주목하세요. 예수께서 마태복음에서 선생님이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치라.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대 명령, 그게 이 책의 끝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처음에 요셉을 제자로, 그리고 사람들이 나가서 예수의 말씀과 명령을 퍼뜨리는 제자도를 특징으로 하고, 이 제자도는 끝까지입니다. 이 책은 그렇게 시작하고 끝납니다. 그래서 초점은 마리아가 아니라 요셉에게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의 제자도 때문입니다. 그는 지시를 받았고 순종했습니다.

V. 동방박사들의 순종(마태복음 2장) [65:39- 68:00]

동방박사, 또 다른 것은, 왜 마태오만 동방박사, 동방에서 온 이 마술사, 이 점성술사들에 대해 언급했을까요? “우리는 동방에서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왜 마태오만 동방박사를 언급했을까요? 다시 말하지만, 여기에는 여러 가지가 수렴됩니다. 저는 동방박사가 이방인이라고 생각하고, 마태는 복음이 유대교를 넘어 이방인에게 전파되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 그는 유대인 공동체에 편지를 썼고, 그 광범위함을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에 동방박사들에게 그것이 일부이고 아브라함 언약의 성취라고 말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매튜슨 박사님, 그가 마태복음의 첫 구절을 가르치실 때, 매우 흥미로운 내용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의 첫 구절,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기록과 족보.”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또한 “다윗의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이 언급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아브라함 언약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세 가지 약속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이하에서 아브라함은 유대 민족의 조상으로서 세 가지를 약속받았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은 월슨 박사의 가장 유명한 책입니다. 세 가지: 그는 땅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는 씨를 약속받았습니다. 그의 씨가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처럼 번성할 것입니다. 그의 씨 이삭과 야곱의 열두 지파를 통해 그의 씨가 번성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마태복음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마태가 강조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아들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땅의 모든 민족이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 아브라함에 대한 언약은 땅, 씨, 모든 민족에게 축복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이 아브라함 언약이 확장된 것은 예수를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이 모든 구약의 주제에서 일하고 있지만 아브라함 언약은 실제로 그것을 실행하고 날려버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를 찾습니다.

다. 베들레헴의 유아 학살 [68:00-71:48]

H: Combine WY; 68:00-81:08; 제자 양성 3부

동방박사들은 그 일부이고 순종하는 자들로서 옵니다. 천사가 동방박사들에게 나타나서 “헤롯에게 돌아가지 마라. 헤롯이 어린아이를 죽이려 한다. 다른 길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동방박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동방박사들에게서 요셉 1장과 2장에서 얻은 것과 같은 순종에 대한 동일한 생각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요셉의 경우, 헤롯은 어린아이를 죽이려 하고, 동방박사들과 함께 베들레헴의 유아들을 죽일 것입니다. 조심하세요. 제가 어렸을 때, 저는 베들레헴이 거대한 도시라고 생각했고, 헤롯이 들어가서 두 살 이하의 모든 아기들을 죽였고, 수백 명의 아기들이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그것을 전혀

축소하고 싶지 않습니다. 헤롯이 한 일은 정말 나빴습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베들레헴이 고든 칼리지 캠퍼스에 들어갈 만큼 작다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의 유아들을 죽인 것은 아마도 열두 살 이하의 아이들이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거기에는 몇 백 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두 살 이하의 유아는 몇 명이나 될까요? 대부분 사람들은 열 명이나 열두 명의 아이들이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수천 명의 사람들을 죽였다는 것은 아니고, 솔직히 말해서 역사적으로 그것은 언급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아주 사소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만약 당신의 아이가 열두 명이라면, 여전히 열두 명이지만, 저는 당신이 여기서 이것을 관점에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베들레헴은 작은 마을입니다. 그들은 구약과 신약에서 “도시”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했고, 제 번역에서는 “마을”이라는 단어로 표현하려고 했습니다. 미국에서 도시는 뉴욕, 보스턴, 필라델피아, 마이애미, LA 또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시”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이러한 큰 도시 중심지를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작은 마을이었고, 수백 명, 300명이나 400명 정도였습니다.

요셉은 헤롯이 그를 따라와서 떠나 이집트로 갈 것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 그래서 요셉은 마리아와 아이를 데리고 이집트로 갑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는 이집트에서 나와 나사렛으로 올라갑니다. 그는 유대로 돌아가지 않고 나사렛으로 갑니다. 그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누가

이집트에서 나오는지 매우 흥미롭습니다. 이것의 모든 뉘앙스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예수, 그의 탄생은 이집트에서 나와 나사렛으로 갑니다. 누가 이집트에서 나올까요? 모세는 이집트에서 나옵니다. 예수는 새로운 모세이고, 그래서 모세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도 예수는 이집트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뉘앙스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천사가 그에게 말한 것에 순종했고 여기서 요점은 순종입니다.

헤롯은 어떤 의미에서는 순종적이기도 합니다. 헤롯이 아이들을 죽인 후에도 예레미야의 말을 인용하여 “예레미야의 선지자가 ‘라헬이 자식을 위하여 울며 위로받지 못할 것은 자식이 없기 때문이라’고 한 말이 이루어졌느니라”고 말합니다. 여기가 어디인가요?라헬의 무덤은 베들레헴 외곽에 있으며, 베들레헴에서 바로 1마일 떨어진 릿지 루트에 있습니다. 북쪽과 남쪽으로 가는 95번 도로와 같은 주요 도로입니다. 사실 95번 도로와는 달리 1번 도로와 비슷합니다. 산의 능선을 따라 북쪽과 남쪽으로 갑니다. 라헬의 무덤은 베들레헴 외곽에 있는데, 그녀가 죽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라헬은 자식을 위해 울었고, 그녀는 수호성인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인용하고 인용합니다. 헤롯은 파괴 행위를 저지르면서도 제자로서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사람으로서 어떤 면에서는 성경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X. Imitatio -주인과 같이 됨 [71:48-77:33]

대명령, 우리는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고 아브라함의 축복이 유대교를 넘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여기서 몇 가지 작은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을 살펴보고 싶었고, 제자가 제가 " 이미타티오 " 라고 부르는 존재라는 개념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미/타/티* 오는 모방하는 것입니다. 학생은 교사를 모방합니다. 제가 목공을 배우고, 대목수 밑에서 공부하고, 대목수가 판자를 자르고 매끈하게 다듬는 방법을 보여준다면, 저는 직접 해보려고 하고 대목수를 모방합니다. 저는 대목수가 하는 것처럼 판자를 다듬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 대목수를 모방합니다 .

저는 농구를 좋아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인디애나에 살았고 인디애나에는 농구라는 스포츠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평생 스포츠를 많이 본 적이 없었고, 항상 스포츠를 하는 것을 더 좋아했습니다. 저는 스포츠를 했습니다. 신입생 때 Houghton College에 다닐 때는 농구를 했지만 그 이후로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3시즌 동안 농구와 테니스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자랄 때 우리는 매일 밤 수백 개의 농구 슛을 했고, 다양한 위치에서

슛을 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각 위치에서 10개의 슛을 하게 했고 매일 밤 25개의 파울 슛을 했습니다. 재미있었고, 그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였습니다.

제 아들은 90년대, 1990년대의 텔레비전에서 농구를 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 저는 텔레비전에서 스포츠를 보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앉아서 이 남자가 농구를 하는 것을 보았고, 그는 농구를 했고 저는 이 남자가 농구를 하는 것을 보았고 제 눈이 보고 있는 것이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하는 일은 불가능했습니다. 그저 "맙소사, 이 사람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그의 이름은 마이클 조던이었고, 그는 제가 평생 본 가장 놀라운 농구 선수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은 앉아서 마이클 조던과 시카고 불스가 경기를 하는 것을 보는 의식을 만들었고, 필 잭슨 코치가 경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마이클 조던이 농구를 하는 것을 보았고 그것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제 아들은 마이클 조던의 스텐트를 따라했습니다. 제 큰아들은 뛰어올랐고, 정말 뛰어올랐습니다. 그는 점프를 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백인 남성 중 한 명이었고, 그는 뛰어올랐습니다. 그는 마이클 조던의 곡예를 최선을 다해 했고, 저는 항상 그것을 가볍게 여기며 "잭, 그러지 마, 너는 마이클 조던이 아니야, 너는 이런 걸 할 수 없으니까 시도조차 하지 마."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마이클 조던을 지켜보았습니다. 조던은 그의 모델이었기 때문에 이런 모방이 있었고, 이런 더블 리버스 레이업 같은 것을 시도했습니다.

그가 뉴햄프셔주 포츠머스 크리스천 아카데미에 다닐 때 많은 사람들이 제 아내와 저에게 다가와서 “우리는 항상 당신 아들이 농구하는 것을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미친 듯한 움직임을 하고 종종 성공하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실제로 뉴햄프셔주 올스테이트 팀에서 뛰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마지막 경기 중 하나에서 저는 그가 덩크슛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그에게 100달러를 걸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는 키가 5’10” 또는 5’11” 정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덩크슛을 할 수 있지만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높이 점프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공을 훔쳤고 그의 앞에 사람이 있었고 문제는 항상 코트 위에 있는 사람에게 공을 패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공을 훔쳤고 저는 그가 림을 보고 오늘 밤이라고 말했고, 패스트 브레이크로 드리블을 했고 공을 패스하지도 않고 그날 밤에 덩크슛을 했습니다. 그날 밤 나는 그런 베팅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나는 백 달러 더 싼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그것이 당신 아들에 대한 재밌는 이야기라고 말합니다. 글썄, 요점은 그가 그의 선생님인 그의 선생님을 따라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이클 조던이었고, 그래서 그는 마이클 조던이 할 수 있는 움직임을 배우고 시도했고, 그것이 그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보내시며, “제자가 스승과 같고 종이 주인과 같으면 족하니, 집안의 주인이 베엘제불이라 불리면 족하니라(예수께서 정죄를 받으셨을 때, 그들은 그가 귀신을 쫓아낸다면 베엘제불 덕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이 나를 스승이라고 불렀다면, 집안 식구들이 하물며 베엘제불 덕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베엘제불 덕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제자가 스승보다 높지 않고, 그래서 예수님께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제자가 스승과 같으면 족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이 모방의 일부입니다. 제자는 스승과 같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려면 스승과 같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에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통과 정통주의의 개념입니다. 여기서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을 사용하시고 바리새인들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는 바리새인들도 제자들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과 랍비들도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Y. 믿는 자들의 형제애는 위계가 아니다 [77:33-81:08]

그는 마태복음 23장 10절에서, 그런데 마태복음 23장 10절에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대적하신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화가 있을진저, 위선자들아, 너희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잔의 겉은 깨끗이 하지만 안은 더럽구나.”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에서 바리새인들을 향해 “화가 있을진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라고 말씀하십니다. 2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불리지 말라. 너희의 선생은 오직 한 분이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랍비라 불리지 말라. 너희는 다 형제니라. 아무도 너희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게 하라. 너희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한 분이시니라. 너희를 선생이라 부르지 말라.” 그래서 저는 항상 제 학생들에게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말고 “교수”라고 부르라고 말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실제로 알 수 있을 겁니다. 죄송합니다.

설명드리자면, 그것은 냉소적인 발언이었습니다. 그게 요점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요점은 저를 “교수”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저를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저는 그것이 요점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글썄요, 계속해서 요점이 뭔지 살펴보죠. “선생님이라 불리지도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선생님은 한 분뿐이시니, 그리스도”, *크리스토스*, 메시아, 기름부음받은 자입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 요점이라고 생각해요. 기독교는 매우 평평한 종교입니다. 우리에게는 아버지라고 부르는

분, 랍비라고 부르는 분이 없고, 존경하는 분, “오 예, 아버지 랍비, 가르쳐 주세요”라고 하는 분이 없습니다. 아니요, 기독교는 매우 평평하고 큰 위계가 없습니다.

제 아들은 여러 회사에서 일했는데, 어느 시점에 그는 다섯 명의 상사를 거쳤고 다섯 계층의 관리직을 거쳤습니다. 문제는 그가 프로그래밍을 하고 모든 일을 했고, 이 다섯 명의 관리자, 그리고 그들 중 일부는 무엇이든 관리하는 것 외에는 별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그는 모든 일을 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관리직 계층이 없습니다. 아니요, 여러분은 모두 형제입니다.

가장 큰 자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무엇을 하셨습니까?나는 선생님이고, 나는 아버지이고, 나는 그리스도이고 기름부음 받은 자입니다 . 그리고 그리스도, 아버지, 기름부음 받은 자는 무엇을 하셨습니까?그는 내려와서 “신발을 벗으라”고 말씀하시고, 가장 큰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여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그들의 발을 씻으셨습니다. 제자도는 이것이고, 제자도는 종교에서 “거룩한 사람”이라는 지위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의 왕국에서 위에 있는 사람은 섬기고 발을 씻고 더러운 일을 하고 하찮은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위에서 큰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때때로 우리가 관리 모델을 취해서 교회에

적용한 것이 두렵습니다. 이제 갑자기 교회에는 관리 계층이 모두 있고, 예수는 “이제 너희는 모두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권력 구조의 계층적 요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형제이고, 여러분 중 가장 큰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요, 노예가 될 것입니다. 교회의 구조에 대한 매우 흥미로운 설명이 있습니다.

Z. 정통성 대 정통 실천성: 그들이 말하는 대로 하라, 그들이 하는 대로 하지 마라 [81:08-84:56]

I: Z-AA 결합; 81:08-88:15; 정통성/ 정통 대리

그래서 정통주의, 정통실천주의, 제가 그냥 말씀드리자면--저는 거기에 이렇게 말하는 다른 구절을 잊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순종하되, 그들이 하는 것은 행하지 말라. 바리새인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것은 순종하되, 그들이 하는 것은 행하지 말라.”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는 바리새인들이 올바른 것을 가르치지만 올바른 것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위선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너희는 나의 제자이고, 가르치고 행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어를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그것을 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정통주의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그들이 순수한 교리, 성경에서 나온 그리스도의 진정한 교리를 고수한다는 점에서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많은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정통주의는 정말 중요하고,

우리 자신, 그리스도, 우리 세상에 대한 성경에 근거한 모든 진정한 교리입니다. 그런 것들은 매우 중요합니다. 정통주의는 매우 중요하지만, 그것은 또한 진정한 사고방식과 진정한 행동방식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기독교는 머리에 관한 것이고, 그런데 기독교는 마음에 관한 것만은 아닙니다 . 기독교는 우리의 머리와 우리가 사물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에 관한 것입니다. 또한 마음에 관한 것이지만, 우리의 손, 우리가 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느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손으로 하는 것입니다. 머리, 마음, 손은 모두 제자가 되고, 그들이 말하는 것을 따르지만 그들이 하는 것을 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형제애이고, 그들이 말한 대로 겸손은 권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의 일부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겸손한 사람이며 권력이나 그런 종류의 모든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종종 제 학생들에게 돈, 섹스, 권력이라는 세 가지 나쁜 것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세 가지 나쁜 것을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돈, 섹스, 권력. 이제 섹스: 섹스를 하지 마세요. 더럽습니다. 섹스를 하는 것이 들킨다면 - 존 F. 케네디 대통령부터 아래까지 우리가 겪은 모든 문제를 알고 있을 겁니다. 섹스를 하지 마세요. 더럽고, 노출되고, 그런 맥락에서 섹스는 나쁩니다. 돈;

저는 종종 고든 칼리지에서 가르치는데, 여러분은 학자금 대출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미국에서 15조 달러를 빚졌다고요? 돈에 대해 걱정하지 마세요. 돈은 절대 없을 테니까 돈에 대해 걱정하지 마세요. 깨끗한 것은 무엇일까요? 돈, 섹스, 권력; 깨끗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실 그것은 권력입니다. 권력은 미묘한 것입니다. 그것은 깨끗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권력을 가질 때 다른 사람들은 그에게 꺼안습니다. 권력은 추구하는 것이고, 그것은 깨끗한 죄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가장 미묘하고 따라서 가장 치명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는 섹스를 하고 싶지 않다”, “나는 돈을 하고 싶지 않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나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권력이 게임의 이름입니다. 여러분은 많은 사람들이 권력을 추구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니, 내 백성은 종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겸손의 문제이고, 우리가 화면에서 거꾸로 된 왕국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왕국에는 왕과 모든 대리인과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왕이 되는 것은 모든 사람의 하인입니다.

AA. 하나님의 뜻을 행함: 지혜로운 사람/어리석은 사람, 예수의 가족 [84:56 – 88:15]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를 가르치는 것은 무엇인가?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를 가르치는 것은 무엇인가? 지혜로운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어리석은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었다 - 마태복음 7:24. 그것은 두 사람을 갈라놓았습니다. 이거 보세요, 제가 이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자와 같으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는 말씀을 듣는 자일 뿐 아니라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다시 강조하고 계신데, 야고보서의 말씀과 비슷합니다.

여기 또 하나, 제 생각에 꽤 충격적인 것이 있는데, 이건 예수님의 가족과 관련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이 밖에 계시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예수님, 당신의 가족이 밖에 있는데 당신을 보고 싶어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기억하십니까? 왜 그들을 보러 가지 않으십니까?” 그는 제자들을 가리키며 “이들은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는 누구입니까? 그는 여기서 우리에게 예수의 가족의 일원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그의 어머니나 형제들을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쓰고 유다가 유다서를 쓸 것이고, 그들은 예수의 형제들이고, 마리아는 물론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았습니다. 예수는 끝까지 그의 어머니 메리를 돌보십니까? 예수는 요한복음에서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다. 제자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제자들은 무서워서 달려갑니다. 예수가 죽어가는 동안 그의 발치에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여성들, 마리아의 사람들입니다. 저는 신약성경에 나오는 여성의 절반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맹세합니다... 하지만 그는 십자가에서 내려다보며 그의 어머니 마리아를 보고 “요한”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야, 사랑하는 제자야, 네가 그녀를 돌보아라”라고 말합니다. 죽음 속에서도 그는 어머니를 걱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머니를 전혀 폄하하지 않으시고, 제 어머니가 어떤 분인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가족을 구성하시고, 예수님의 가족에 들어가는 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제자가 되고 그의 가족에 합류하는 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설명하십니다. 누구든지 아버지의 뜻을 행하면 형제 자매 어머니 안에서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주목하세요. 그게 말씀인가요? 아니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는 내 형제 자매 어머니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정통성에 대한 강조가 있고, 정통성이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는... 그래서 그것은 정말 중요한 것이고, 그것들은 어려운 일입니다.

AB.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의로움 [88:15-91:33]

J: AB-AD를 합치세요; 88:15-99:42

예수께서 의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여기에는 의의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는 요셉이 의로운 사람으로 여겨졌다는 것을 알고 있으므로 의에 대한 이러한 개념을 얻습니다. 마태가 의에 대한 이러한 개념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마태를 다른 복음서와 비교하는 것이 이를 증명하는 방법입니다. 그럼 이것을 살펴보세요: 누가복음 12장 31절, 여기에 “그러나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러면 이것들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렇게 기억하지 못하노라”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부분이 마태복음 6장에서 그 구절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그러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을 주목하세요. 그리고 마태가 “의”라는 단어를 추가한 것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누가는 그것을 건너뛰고 “그러나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러면 이것들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마태는 “그러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것들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강조하고 거기에 의로움을 삽입하면서 의로움과 왕국 사이의 연관성에 주목하세요.

이제 여기에 같은 유형의 내용을 담은 또 다른 구절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너희를 쫓아내고, 인자 때문에 너희를 모욕할 때 너희는 복이 있나니...” 그리고 그것은 누가복음 6장 22절에서 그렇게 나옵니다. 여기에 같은 행복에 대한 마태복음이 있습니다. “의 때문에 박해받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래서 당신은 여기에 “의 때문에”라는 진술을 얻게 됩니다. 보시다시피 여기에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제자들의 참된 본성과 의로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다른 것이 있는데, 누가가 사람들에게 대해 이야기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과 그런 종류의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꽤 흥미롭습니다. 그는 아버지 없는 사람들, 과부, 가난한 사람들을 매우 의식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지금 주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르게 될 것임이요”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단순히 배고픈 사람들에게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가난한 사람들은 음식이 없고 배고픈 것처럼 보입니다. 마태가 같은 구절에서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들은 복이 있나니”를 어떻게 다루는지 유의하십시오. 그는 그것을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서 의의 개념을 강조합니다. “그들은 배부르게 될 것임이요” “그들은 배부르게 될 것임이요”. 보시다시피 마태는 의의 이러한 본질을 강조합니다.

AC. 더 나은 정의: 머리에서 마음으로 [91:33-96:55]

그렇다면 이러한 차이점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라는 주제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의 아버지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그의 의로움에 주리고 목마르게”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는 더 깊은 의로움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예수는 그것을 머리에서 마음으로 옮깁니다. 그래서 예수에게서 이런 종류의 진술이 나옵니다. “너희는 간음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느니라...”, 이제 모든 사람이 “나는 간음한 적이 없고 이혼한 적도 없다”고 말합니다. “너희는 간음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느니라.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는 자는 이미 마음으로 간음한 것이니라.” 그러므로 간음은 이제 십계명에서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가 있습니다. 그것은 십계명 중 하나이지만, 예수는 여자를 보고 그녀를 탐하는 사람은 이미 마음으로 간음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방에 있는 모든 사람이 간통한 자이며, 여자를 보고 마음에 정욕을 품은 사람이라는 뜻인가요? 적어도 모든 남자들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율법을 가져다가 마음에 박아 넣으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는 그 아래에서 “너희는 옛날에 살인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느니라.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이유 없이 노하는 자는 이미 마음에 살인을 범한 것이라.”라고 말합니다. 분노는 많은 살인의 근원이며, 예수께서는 우리가 그것을 깊이 파고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에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당신이 하는 일이 아니라 당신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이 누구인가입니다. 그러므로 분노는 살인의 씨앗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분노가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니요. 구약성경에서 하나님은 분노하십니다.

신약성경에서 예수님은 분노하십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은 분노하십니다. 저는 바울서신에서 “노하되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분노는 살인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예수께서는 당신이 마음에 분노를 저질렀다면,

옛날 옛적에, 저는 10년 넘게 미시간 시에 있는 인디애나 주립 교도소의 최고 보안 교도소에서 가르쳤습니다. 저는 그레이스 대학에서 가르쳤고, 밤에 차를 타고 미시간 시에 있는 인디애나 주립 교도소로 달려가서 반쯤 잠든 채로 몇 시간 동안 가르친 다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항상 “교도소에 있는 이 사람들과 어떻게 지내세요?”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제가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과 공감할 수 있는 이유는, 당신이 말했듯이, 이 사람들은 모두 큰 집에 있고, 최고 보안, 40 피트 높이의 벽, 10피트 두께의 벽에 있기 때문입니다. 1865년에 문을 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오래되고 낡았고, 벽이 엄청 큼니다. 제가 그들과 어떻게 공감할 수 있을까요? 글썄요, 예수께서는 형제에게 화가 났다면, 마음속으로는 이미 살인을 저질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교도소에 살인자 친구들이 있는데, 당신은 어떻게 이 살인자들과 공감할 수 있냐고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저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다른 사람을 죽인 적이 없지만, 마음속으로는 범죄도 저질렀습니다. 간통죄로, 이 남자들 중 일부는 강간죄로 거기에 있습니다. 저는 여자를 정욕적으로 바라봤지만 감옥에 들어갔을 때 그 남자들이 저와 많이 달랐나요? 아니요, 그들은 제 형제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저지른 일의 뿌리도 저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제가 밖에 있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께서 죄의 개념을 마음에 주입하여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게 하시고, 예수께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주된 사명은 무엇이며, 그의 이름은 무슨 뜻인가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무엇으로부터 구원하시는 것인가요? 그의 이름은 예수인데, “그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는 사람들의 죄를 위해 죽으시러 오셨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주요 요점입니다. 때때로 현대 문화에서는 복음의 메시지를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으로 옮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회 복음, 사회 정의 문제--그래서 우리는 사회 정의 문제에 대해 큰 문제를 제기하고, 저는 우리가 요점, 즉 예수께서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놓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우리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사회 정의 문제라고 말하고 있고, 저는 사람들에게 “아니요, 예수께서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그것을 이해해야 하며, 그것이 우리의 주요 초점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난 20, 30, 40, 50년 사이에 우리 문화에는 미묘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한 말조차도 어떤 사람들은 매우 불쾌하게 여길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예수님의 본래 부르심, 즉 그가 그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것이라는 부르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즉, 사람들은 죄인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하며, 우리는 “아니요, 아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의 이름은 예수입니다.

서기. 핵심적인 의로움 [96:55-99:42]

마태복음 12장 36절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심판 날에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꽤 강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더 나은 의로움을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의로움은 마음에서 나와야 합니다. 무엇이 옳은지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음에서 나와야 하며, 분노와 정욕에 이르기까지 말입니다. 이제 더 나은 의로움은 입에서 손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는 일을 하지 말고, 그들이 하라고 하는 일을 하고, 그들이 입으로 하는 말을 하십시오. 여러분은 그것을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 손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들이 하는 말을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
여러분은 말씀이 말씀하시는 것을 해야 합니다.

핵심 의로움, 마태가 전개하는 핵심 의로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마태복음 22장. 두 가지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예수님께 구약의 가르침을 요약한 것이 무엇이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핵심 의로움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어려운가요? 미워하는 것이 더 쉬운가요 아니면 사랑하는 것이 더 쉬운가요? 미워하는 것이 더 쉽고, 사랑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은 어렵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는 제자들과 그들의 이해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다음 시간에 그것을 다루고 제자들의 이해에 대해 살펴볼 것입니다.

Stephanie Bouillon이 필사함

Ben Bowden

편집 Ted Hildebrandt가 편집한 Rough